

# 친환경축산 시책과 과제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 1. 국내 축산업의 여건

'04년도 축산물의 생산액은 10.8조원으로 농림업생산액(37.3조원)의 29%를 점유함에 따라 처음으로 쌀 생산액(9.9조원)을 앞서기 시작했다. 축산업은 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중심산업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성장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축산물의 생산가치보다 환경 가치를 우선하는 관계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축산업은 밀집사육지역의 형성과 가축의 사육형태도 사육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농가에서는 사육과정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항생제 등 남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축산환경은 국내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축산물 소비감소 및 축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친환경축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었다. 제도적으로도 약취방지법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유기축산물 공급과 동물복지 등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업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국내 축산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 시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친환경축산정책과 과제

가.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이용촉진

가축분뇨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환경오염원이 아닌 퇴·액비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여 가축분뇨처리의 근본적

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자금을 1조원 정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41억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해양 배출 물량 감축 및 단속강화에 따른 분뇨분리 장비구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처리시설의 활용도를 제고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와 관련 자재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처리시설 및 악취제거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선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기준과 사용요령을 마련하여 토양별·작목별로 적정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성분분석, 퇴·액비 시비 처방서 발급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특성상 화학비료에 비하여 부피가 크고 살포 등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 퇴·액비 유통주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액비는 운송차량 등 액비유통장비를 지원(개소당 2억원)하고 유통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부터 액비살포비(평당 50원)를 지원(국고 50%, 지방비 50%)함으로써 경종농가가 액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장·군수 주관으로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유통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자연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지역농·축협의 자연순환농업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농·축협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을 준비 중이며 시·군별 양분(화학비료, 가축분뇨) 수급분석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도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종농가의 액비 활용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확대('05년 : 245억원 → '06년 : 420억원), 교육·홍보 강화, 저장조 지원(560개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나. 환경영향을 고려한 축산기반 구축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분총량제의 정책목표는 지역별 양분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양분균형을 달성함으로써 농업부문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분이 과다 투입되는 지역만을 대상하여 화학비료 감축과 가축분뇨처리 공법을 다양하게 유도하는 등 해당지역의 양분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시행을 위해 '05~'06년까지 축산환경 모니터링 팀 구성과 운

또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밀사육 억제제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요건을 현재 축사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축사면적과 사육두수를 병행관리 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등록제를 '0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개발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적인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가축사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 다. 축산업등록제 추진

축산업등록제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제도로써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존의 각 기관·단체 또는 사업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가지원·관리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 축산의 도약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축산업등록제 추진에 따른 등록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업, 가축사육업(소·닭·오리 300㎡, 돼지 50㎡ 초과농가)으로 축산업 등록 법정기한인 '05.12.26까지 51천호가 등록완료 하였다. 이중 등록대상 농가는 45천호이며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 또한 6천호가 등록하였다. 이러한 등록정보들은 앞으로 축산농가의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도 및 위치추적시스템 도입, 질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 라.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추진

친환경 축산을 통해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소득유지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이며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수단 단계(개별법 규제⇒축산업등록제⇒친환경축산직불제⇒유기축산)에서 최종단계인 유기축산 전 단계이다. 이러한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은 축산업등록을 하고 친환경축

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로 기본프로그램은 1,300만원, 조정수 식재 및 환경개선제 구입 등 인센티브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조건은 소의 경우 일 정면적 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하여야 하며, 돼지와 닭의 경우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소·돼지·닭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은 친환경교 육이수와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 출하 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마.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05년말 기준 18개의 품목이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하였다. 유기축산 인증현황은 한우우 3, 돈육 2, 계란 7, 계육 3, 원유 3품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업에 비해 유기축산은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그 부진사유는 결국 국내 유기사료의 생산유통 기반 취약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사료수급 여건상 유기사료의 생산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03~'05년까지 3년간 실시하고 국내 유기축산 사양관리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06~'10)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친

환경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범위를 기존 유기, 전환기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추가하고, 기존 품질인증 농가의 친환경 축산 전환유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 등의 컨설팅 추진으로 친환경축산에 위한 교육 및 모델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자재에 충분히 부속된 퇴·액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 유기사료를 사료관리법에 의거 성분등록토록 하는 유기사료 성분등록 및 표시관리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며, 휴경지 등을 이용한 총채보리 생산 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 연계와 자체 목초지 또는 사료포 확보, 친환경지구조성사업 등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연계로 유기농산 부산물의 공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에 따른 가공품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유기축산물가공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환경과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대와 젓소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원유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은 생산자단체((사)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낙농가 자율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의 주요내용은 목장 환경개선 교육 및 캠페인 전개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본부”를 중앙과 도에 운영 중이며 목장 관리

지침 및 환경개선 표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의 그동안 추진상황은 '05.3.21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리후렛 제작 배부, 목장 환경개선 표준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향후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은 목장환경개선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목장을 선정하고 그 사례집의 발간을 통해 자율적 추진에 따른 홍보에도 힘을 더할 계획이다.

**3. 05-11-11-11-11**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친환경축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축산을 영위하는 축산농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모두 급변하는 축산환경 변화에 빠르고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하지만 축산물 수입개방 등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정부와 농가가 합심하여 대처해 나아간다면 대응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품질 높은 퇴비·액비를 생산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종과 연계한 정책 추진으로 그 수요를 확대한다면 해양배출 감축 등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가축분뇨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영위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축산업의 경우 경종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전업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우리 축산의 위치를 기대해 본다. ☺